

한 국 사

1. 광개토 대왕의 명칭이 새겨진 유물은?

- ① 단양 신라 적성비
- ② 공주 무령왕릉 지석
- ③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 ④ 경주 호우총 출토 호우명 그릇

2.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상대등을 설치하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는 (가) 와/과 율령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다.

- ① 병부를 설치하였다.
- ②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 ③ 국호를 신라로 정하였다.
- ④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3.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찬 우징은 김명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이의 원수를 갚고자 청해진을 관장하는 그에게 군사를 요청하였다. ... (중략) ... 문성왕 8년에 그는 왕이 자신의 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 ① 사벌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 ②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③ 완산주에 도움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
- ④ 당, 신라, 일본 등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4.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무왕은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는 데 힘쓰는 한편,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당이 흑수 말갈과 유대를 강화하여 (가) 을/를 견제하려 하자, 무왕은 장문휴가 지휘하는 군대로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 ① 중앙군을 2군 6위로 구성하였다.
- ② 3성 6부제의 중앙 관제를 갖추었다.
- ③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설치하였다.
- ④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5.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공을 세운 호족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내리며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유력한 호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일부에게는 왕씨 성을 내려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① 친원 세력인 기철 등을 제거하였다.
- ②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④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로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가 함께 모여 주로 국방 문제를 논의하였다. 고려 후기에 그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명칭도 바뀌었다.

- ① 도병마사
- ② 식목도감
- ③ 정동행성
- ④ 교정도감

7.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 충주 부사 우종주와 판관 유흥익은 (가) 이/가 쳐들어오자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 김윤후는 (가) 이/가 침입해 오자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살리타를 격살하였다.

- ① 팔만대장경을 제작하였다.
- ②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 ③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 ④ 신기군, 신보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8.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변을 일으킨 다음 어린 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가) 은/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열지 않았다. 아울러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 ①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 ②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 ③ 진관 체제를 실시하였다.
- ④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

9.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번 그가 아뢰바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관중에서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이른바 현량과 시행에 혹시 뒷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혹시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좋은 일입니다. 비록 한두 사람이 천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시행해야 합니다.

- ① 북벌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② 『성학집요』를 저술하였다.
- ③ 소격서 폐지를 건의하였다.
- ④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10.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은?

이 시기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풍속화의 유행이다. 특히 김홍도는 서민의 일상을 사실적이고 재치 있게 묘사하였다. 「서당」, 「씨름」 등의 작품이 그것이다.

- ① 담배, 면화를 재배하는 농민
- ② 규장각 검서관으로 근무하는 서열
- ③ 지눌과 수선사 결사를 논의하는 승려
- ④ 금난전권의 폐지에 반대하는 시전 상인

